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

2020 Korean Antique's Association Exhibition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

Korean Antique's Association
Exhibition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약관 및 감정안내

約款・鑑定案内

Appraisal Guide & Provision

I
9
4

5

목기 · 민속품

木器・民俗品

Wooden Arts · Folklore Materials

I
I
2

4

서화

書畫

Calligraphy and Paintings

0
6
4

3

토기 · 금속 · 도자

土器・金屬・陶瓷

Pottery · Metal Arts · Porcelain

0
I
0

2

인사말 · 축하 · 격려사

人事・祝辭・激勵辭

Greetings & Congratulatory Message, Words of Encouragement

0
0
4

1

목차

目次

Contents

1

인사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평소 우리 문화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를 아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애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고미술협회는 선조들의 열과 삶이 담긴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국민과 함께 향유하면서 보존 관리하고자 꾸준히 앞장서 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전시회에 참석해 주신 애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전시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준비해 주신 전시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으로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 치유와 여가의 장을 마련하고자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고미술 애호가 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내부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번 전시회가 전국 회원들은 물론 고미술 애호분들에게 더욱 고미술을 사랑하는 동기 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미술계에도 변화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고미술협회는 고미술계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회를 준비하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을 찾아 관람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이 책은 한국고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종로구청이 주관하여 2020년 7월 24일 부터 7월 30일까지 전시하는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전시도록이다.
- 2 도록에 수록된 유물은 명칭, 작가, 시대, 크기 순으로 명기하였다.
- 3 도록에 수록된 유물의 크기는 도자기_ 높이×입지름×굽지름, 목기_ 가로×세로×높이, 서화 등의 평면작품_ 세로×가로 순으로 표기하였다.
- 4 서화의 제작연대는 작가의 생몰연대로 표기하였다.



2020. 7. 24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박 정 준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도종환입니다.

2020년 한국고미술특별전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한국고미술협회 박정준 회장님을 비롯한 고미술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질병의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술품 시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미술품들이 귀한 가치를 품은 채 세상으로 나올 날만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한국고미술협회의 회원들께서 합심하여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개최해주셨습니다. 고미술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전시회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미술품시장 위축 속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침체 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500여명의 회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우리 고미술품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시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고미술품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2020년 한국고미술특별전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특별전에 애써주신 박정준 회장님과 (사)한국고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7.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 종 환

축사

(사)한국고미술협회 특별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미술품은 한 민족의 얼과 멋이 담긴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상의 혼과 땀이 뻗은 역사의 유물인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고미술협회 박정준 회장님 이하 종로지회 강민우 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고미술품을 사랑하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우리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도 이러한 고미술 작품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도 그 일환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구입요청과 홍보를 하였습니다. 고미술협회 회원들이 그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고미술품을 대중 공간에 공개함으로써 소수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과 함께 즐기는 대중문화여야 한다는 믿음과 소신을 몸소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기회에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작품전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조상의 멋과 얼을 느끼고, 그 느낌을 생활 속의 문화로 실천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고미술품 하나하나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예술혼이 울망줄망 엮인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늘 이러한 문화유산의 향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미술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선조들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 겪는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애호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4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김 종 규

축 사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영중입니다.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으로 개최하는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사)한국고미술협회 박정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미술품은 우리 선조들의 혼과 정신이 담겨있으며, 이번 전시는 고미술품 감상을 통해 그 당시 생활모습과 문화를 엿볼 수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님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귀중한 고미술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며 우리나라 미술품의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삶이 담긴 아름다운 고미술품들이 널리 알려지고 소장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시며, 이번 전시회 준비로 애쓰신 (사)한국고미술협회 박정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4.
종로구청장 김 영 중

격 려 사

한국고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신 한국고미술협회 박정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미술품은 우리 민족의 얼과 멋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조상의 정성과 땀이 새겨진 역사의 창조물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선조의 정성을 간직한 고미술품을 이해하고 느끼며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고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선조들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고, 문화재 애호와 보존의식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전시회와 같이, 다양한 고미술품을 수집·전시하여 고미술 애호가들에게 이를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회를 준비하고 개최하시는 한국고미술협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4.
문화재청장 정 재 숙

토기 · 금속 · 도자

土器 · 金屬 · 陶瓷

Pottery · Metal Arts · Porcelain

1

토기차륜각배
土器車輪角杯
가야시대
22.5×25cm



2

압형토기 1쌍
鴨形土器 一雙
가야시대
15×19cm 内外



3

홍도
紅陶
청동기
11×7cm

4

홍도
紅陶
청동기
17×9cm

5

토기영락장식호
土器瓔珞裝飾壺
삼국시대
27.5×17.5×15cm



6

토기잔
土器盞
신라시대
13×10cm

7

토기양이호
土器兩耳壺
삼국시대
27×22cm

8

토기골호
土器骨壺
통일신라시대
15×5.5cm

9

토기우각형과수부호
土器牛角形把手付壺
삼국시대
11×10cm



10

토기주자
土器注子
통일신라시대
15×10cm

11

토기방울잔
土器盞
가야시대
17×7×9cm



12

토기골호병
土器骨壺瓶
통일신라시대
15.5×9.5×11cm

13

토기방울잔
土器鈴杯
가야시대
17×8×7cm



14

토기호
土器壺
신라시대
22×14cm

15

토기유개호
土器有蓋壺
가야시대
21.5×12×10cm

16

토기호
土器壺
삼국시대
21×13.5cm

17

토기호
土器壺
삼국시대
60×13.5cm

18

19

17

15

16

20

18

토기호
土器壺
신라시대
26×17cm

19

토기호
土器壺
신라시대
32×18cm

20

토기장경호
土器長頸壺
삼국시대
41×19×23cm

21

토기대부소호 1쌍
土器臺付小壺 一雙

삼국시대
10×5×7cm 内外



23

토기기대
土器器臺

삼국시대
18×13×12cm



22

토기기대
土器器臺

가야시대
56.5×25×32.5cm

받침부와 몸통, 굽다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대로 받침부의 아랫면에는 옆으로 누운 8자모양이 연속적으로 새겨있다. 몸통은 공 모양의 팽배한 부분과 그 위아래의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받침부와 같은 문양이 새겨있고 원형과 사각형의 투창이 나있다. 굽다리에는 사다리꼴모양과 사각형의 투창이 위아래로 뚫려있다. 특히 몸통에 아랫부분에 뱀 모양의 장식이 인상적이다.



24

토기병
土器瓶

고려시대
24×5×9.5cm



25

표형토기
瓢形土器

고려시대
38×20cm



26

토기양이편호
土器兩耳扁壺

고려시대
29×6.5×11.5cm



27

토기병
土器瓶

고려시대
36×10×14cm



28

토기각배
土器角杯
가야시대
20×5.2cm

29

가형토기
家形土器
가야시대
12×12×9cm



28



29

28

30

황비창천명동경
煌丕昌天銘銅鏡
고려시대
16.5cm



31

금속인장
金屬印章
고려시대
9×7×12cm

32

청동검
靑銅劍
청동기
長 32cm





33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향완 쌍
靑銅 銀入絲 蒲柳水禽文香垵 雙
고려시대
各 25×25.5×24cm

향완이란 절에서 마음의 때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며 불단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사용했던 향완은 보통 넓은 구연부를 가진 몸체와 나팔모양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향로 또한 수평으로 넓은 전이 있는 노신(爐身)과 나팔형의 받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향완으로서, 특히 화려한 은입사장식이 국보 제92호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의 문양과 거의 일치한다. 입은 수평으로 넓게 퍼진 테를 가진 전이 있으며, 그 전에 구름 무늬를 새기고 은을 입혔다. 둥근 몸체에는 구름아래 우거진 갈대와 수양버들이 늘어진 언덕이 있으며, 주위로 오리들이 헤엄치는 서

정적인 풍경을 묘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청동 바탕에 문양 부분을 파낸 뒤 은을 박아 장식한 은입사(銀入絲) 기법으로 시문하였다. 나팔형 받침은 위의 둥근부분 전체를 휘감으며 아래에서 위로 오르면서 여의두문을 가는 몸통 전체에 은입사하였으며 굽 부분에는 다시 돌아가며 구름문양을 은입사하였다. 세련된 은입사 문양은 모두 뛰어난 솜씨를 보여줄 뿐 아니라 회화적 가치도 아주 높다. 일본에서 발견되어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이다. 특히 이 향완은 유례가 없는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



34
청동운라악기 24점
靑銅雲鑼樂器 二十四点
고려시대
4×10×6cm 内外

고려시대의 악기 일종이며, 구운라 또는 구음화로도 불린다. 재질은 청동 합금이다. 현재 국내에 몇 점 있는데 한꺼번에 24점이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5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35.2cm

36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24.5cm

37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41cm

38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21cm

39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35cm

40

청동정병
靑銅淨瓶

고려시대
高 38cm



41

청동향로
靑銅香爐
고려시대
22.5×20×15cm

42

청동유개삼족향로
靑銅有蓋三足香爐
고려시대
高 33.5cm



43

청동용두당간
靑銅龍頭幢竿
고려시대
高 53cm

44

청동주전자
靑銅酒煎子
고려시대
29.5×11×11.5cm



45

청동수저 10점
靑銅匙箸 十點
고려시대
長 28cm 内外



46

놋쪽자
銀召兒
조선시대
36cm





47
은제금도금삼존불
銀制金鍍金三尊佛
고려시대
12cm 内外

48
금동약사여래입상
金銅藥師如來立像
통일신라시대
전고 23.4cm 입상고 16.7cm

광배와 대좌를 구비하고 전면에 금색이 찬란하게 남아 있다. 상호는 원만하고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는 인상이다. 범의는 왼쪽어깨로부터 내려진 한 줄기의 의문이 오른쪽 팔꿈치를 돌아 오른쪽 어깨로 넘겨져 있어 마치 통견인것 처럼 보기 쉽다. 양쪽 발은 노출되어 발가락이 완연하다. 수인은 오른손은 팔굽을 약간 구부려 외장하였고 왼손은 앞으로 약간 들어 큼직한 보주를 들고 있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이뤄졌고 하대는 8각으로 2단의 높직한 괴임을 마련하여 안상이 장식된 8면의 측면을 받고 있다.

이 금동여래입상은 근엄한 상호의 인상과 당당한 어깨 투각의 광배 소박한 대좌의 양식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8세기의 수작으로 평가된다.





49
청자도판
靑瓷陶板
고려시대
25×32.5cm

자판(瓷板)은 건조와 번조 때 얇은 두께와 건조속도의 차이 등으로 휘어지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제작이 까다롭고 실패율이 높은 기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자판은 고려청자 제작기술이 태토와 유약뿐 아니라 성형과 건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자판은 비귀를 다듬은 직사각형 자판으로 바깥 부분에 죽문을 가득 채워 넣었고 중앙기 사각형을 만들고 흑백상감으로 운학문을 가득 배치하였으며, 그 안에 원형으로 흑백상감 선을 두르고 백상감으로 여의두문을 이중선 안에는 흑백상감으로 봉황 2마리를 가득 차게 배치하였다. 청자도판은 강진과 부안의 청자요지에서 다수 제작되었으며, 강진 월남사지 등의 사찰에서 주로 출토된 바 있어 사찰 수미단(須彌壇) 등의 장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0
청자상감화문접시 2점
靑瓷象嵌花紋碟匙 二点
고려시대
2.2×11.2×7.5cm 内外

51
청자양각국화문접시 5점
靑瓷陽刻菊花紋碟匙 五点
고려시대
2×10×5cm 内外

52
청자상감국화문팔각완 5점
靑瓷象嵌菊花紋八角碗 五点
고려시대
5×11×10cm 内外



53
청자 배모양 변기(매화틀)
靑瓷便器
고려시대(12세기 후반)
47×16×14cm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만들어진 용기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와 다른 형태이다. 이 같은 형태의 청자는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유색은 완전한 환원이 이루어진 상태로 비취색을 띠고 있다.



54
청자병
靑瓷瓶
고려시대
20×4×7cm

55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瓷象嵌雲鶴紋梅瓶
고려시대
27.5×5.3×10.8cm



56
청자과형유개주자
靑瓷瓜形有蓋注子
고려시대
17×10.5cm





57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고려시대
24×17×13cm



58
청자음각연화문사이호
靑瓷陰刻蓮花紋四耳壺
고려시대
21×9.5×10.5cm

59
청자퇴화문병
靑瓷堆花紋瓶
고려시대
18×3.7×5.3cm



59

60
청자상감운학문완
靑瓷象嵌雲鶴紋碗
고려시대
7×16.5×9cm



60



61

61
청자상감운학문완
靑瓷象嵌雲鶴紋碗
고려시대
5.5×14.5×3cm

62
청자상감화문소병 등 3점
靑瓷象嵌花紋小瓶 等 三点
고려시대
11×3×4.2cm 内外



63

청자음각앵무문발
靑瓷陰刻鸚鵡紋鉢

고려시대
9×21.5×7.2cm

63

64

청자약연
靑瓷藥研

고려시대
20×11cm

64

65

청자상감운학문용두잔
靑瓷象嵌雲鶴紋龍頭盞

고려시대
5×11.5×4cm

65

66

백자잔,잔대
白瓷盞,盞臺

고려시대
12×14×9cm

67

청자철화모란문유개주자
靑瓷鐵畫牧丹紋有蓋注子

고려시대
20×12cm

68

청자상감국화문병
靑瓷象嵌菊花紋瓶

고려시대
10.2×3.3×9cm

69

청자철화당초문매병
靑瓷鐵畫唐草紋梅瓶

고려시대
26×5.8×8cm



70

70
분청자어문병
粉靑瓷魚紋瓶
조선전기
32.5×6.5×9.5cm



71

71
분청자조화문호
粉靑瓷彫花紋壺
조선전기
23×11×11cm



73

72
분청자철화병
粉靑瓷鐵畫瓶
조선전기
29.5×7.2×8cm



72



74
분청자철화당초문호
粉靑瓷鐵畫唐草紋壺
조선전기
9.5×9.8×5.6cm

75

분청자상감구갑문매병
粉靑瓷象嵌龜甲紋梅瓶

조선전기
21×4×9cm



76

분청자상감연화문매병
粉靑瓷象嵌蓮花紋梅瓶

조선전기
32×18cm



77

청자상감연류문매병
靑瓷象嵌蓮柳紋梅瓶

고려시대
24.8×5×9.4cm



78

분청자상감연화류문병
粉靑瓷象嵌蓮花柳紋瓶

조선전기
31×8.5×10cm



79

분청자잔
粉靑瓷盞

조선전기
8.5×11×5cm



79

80

분청자상감우점문발
粉靑瓷象嵌雨點紋鉢

조선전기
10×14.5×7.5cm



80



81



82



83



84

81

분청자인화문내섬명발
粉靑瓷印花紋內贍名鉢

조선전기
6×19.5cm

82

분청자인화문접시
粉靑瓷印花紋楮匙

조선전기
4×18×6cm

83

분청자덤병문발
粉靑瓷덤병紋鉢

조선전기
9×17cm

84

분청인화문발
粉靑瓷印花紋鉢

조선전기
8.5×17×6cm



86
분청자상감어문광구병
粉靑瓷象嵌魚紋廣口瓶
조선전기
22×7.5×9.7cm



85
분청자음각파초문병
粉靑瓷陰刻芭蕉紋瓶
조선전기
17.5×4×8cm



88
청자상감연화매죽문편병
靑瓷象嵌蓮花梅竹紋扁瓶
고려시대
20.5×6.5×9.5cm



87
분청자음각화문병
粉靑瓷陰刻花紋瓶
조선전기
22×5×7.5cm

89
분청자화문병
粉靑瓷花紋瓶
조선전기
24.9×6.2×6.5cm

青瓷 粉青瓷



90
분청자상감화접문병
粉靑瓷象嵌花蝶紋瓶
조선전기
27×7×8.5cm

91
분청자우점문병
粉靑瓷雨點紋瓶
조선전기
14.5×3.5×4.5cm

92
분청자상감초문병
粉靑瓷象嵌草紋瓶
조선전기
24.5×7×9.5cm



93
청자상감연류문병
靑瓷象嵌蓮柳紋瓶
고려시대
33.5×8.5×9.5cm

94
청자면상감모란문병
靑瓷面象嵌牡丹紋瓶
고려시대
30.5×8.2×12cm



95

백자호
白瓷壺

18세기
37.5×16×14.5cm

몸체가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18세기를 대표하는 항아리다. 순백의 태토 위에 맑고 투명한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몸체 중간의 이음새가 말끔하게 다듬어지고 굽의 각음새도 단정하다. 몸체 한쪽은 순백이며, 다른 한쪽에는 분홍색 매화꽃을 연상케하는 흔적(기공)이 남아있다. 굽은 수직이며, 굽 안쪽과 접지면에서는 유약을 닦아 내고 구웠다.



96

백자철화운용문호
白瓷鐵畫雲龍紋壺

조선시대
33×17×13cm

17세기 유행한 철화백자의 특징은 변형과 해학이 듬뿍 담긴 그림 맛과 활달하고 대담한 붓질, 회백 색과 어울린 검붉은 철화의 묵직한 색감에 있다. 이 항아리는 몸통부분은 약간 납작한 공모양이며 몸통을 돌아가며 용과 구름을 그렸는데 용의 세부묘사가 생략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이 해학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다. 기형과 문양에서 대담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철사 안료의 발색이 안정적인 적갈색을 띠고 있다. 백자유약이 얇게 입혀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단정하게 깎은 굽은 안으로 약간 좁아진 다리굽 형태이다. 활달하고 생기가 넘치는 철화문양에서 조선중기백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97
백자호
白瓷壺
18세기
34.5×13.5×12.5cm



98
백자호
白瓷壺
조선시대
34×12.5×12cm



99
백자호
白瓷壺
18세기
35×14.1×13.5cm





100
백자청화진사난초문병
白瓷靑畫辰砂蘭草紋瓶
조선시대
29×5.6×9.3cm



101
백자철화죽절형죽문호
白瓷鐵畫竹節形竹紋壺
조선시대
17×9×9cm



102
백자철화용문호
白瓷鐵畫雲龍紋壺
17세기
28×15×13.8cm

103
백자청화시문병
白瓷靑畫詩文瓶
조선후기
19×4.5×7cm



104
백자청화매죽문병
白瓷靑畫梅竹紋瓶
조선시대
24.5×4.5×8.5cm

105
백자청화가화만사문호
白瓷靑畫家和萬事紋壺
조선시대
22.5×11×12cm





106
백자탕기
白磁祭器
조선시대
16.9×10cm



107
백자진사북두칠성모사기
白瓷辰砂北斗七星紋茅沙器
조선시대
15.5×9cm



108
백자사각제기
白瓷四角祭器
조선시대
10×25.5×16cm



109
백자편병
白瓷扁瓶
조선시대
10×3×3.3cm

110
백자합
白瓷盒
조선전기
21×24.5×12.5cm



113
백지지석함
白瓷誌石函
조선시대
27cm



111
백자합
白瓷盒
조선시대
24.5×30.5×16cm



112
백자장군
白瓷扁缶
조선시대
13×13.8×8.8cm



114
백자수구호
白瓷水口壺
조선시대
13×9.5×8cm

115

백자호

白瓷壺

조선시대

29.5×13.5×12.2cm

116

백자호

白瓷壺

조선후기

37.5×13×11.5cm

117

백자호

白瓷壺

조선시대

33×30cm

115

118

회령호

會寧壺

조선시대

17×12×7cm

119

녹유병

綠釉瓶

고려시대

26.5×8.2×8.5cm

120

석간주호

石間硃壺

조선시대

26×15.5×14cm

116

117

121

백자철화초문호

白瓷鐵畫草紋壺

조선시대

20.5×10×9.5cm

122

백자철화“조선국”필통

白瓷鐵畫“朝鮮國”筆筒

조선시대

16.5×9.5×7.5cm

123

양각죽난문옹기
陽刻竹蘭紋甕器
조선시대
28.8×24.2×19cm

古朝甲寅年

萬物靜光皆自得
만물을 가만히 바라보니
모두 자득해 있네.

深雲史作



124

갈유편병
褐釉扁瓶
조선시대
13.4×4.5×5.9cm



126

갈유연적
褐釉硯滴
조선시대
7×14×9cm



125

흑유음각화문병
黑釉陰刻花紋瓶
고려시대
29×8.1×8.3cm



127

흑유음각화문자라병
黑釉陰刻花紋鼈形瓶
조선전기
13.5×6.5×16cm





128

백자청화어룡문수반
白瓷靑畫魚龍紋水盤

조선시대
7.4×19.5×15.5cm



130

백자청화산수문호
白瓷靑畫山水紋壺

조선시대
24×13.5×13cm



129

백자청화모란문수반
白瓷靑畫牧丹紋水盤

조선시대
10.5×24×13cm



131

백자청화해시계
白瓷靑畫時計

조선시대
7×14×15cm



132



133



134



135

132

백자청화운봉문호
白瓷靑畫雲鳳紋壺
조선후기
23×10.7×10.5cm

134

백자청화운용문호
白瓷靑畫雲龍紋壺
조선후기
51×14×13cm

133

백자청화운용문호
白瓷靑畫雲龍紋壺
조선후기
35×12×12cm

135

백자청화운봉문호
白瓷靑畫雲鳳紋壺
조선후기
34.5×11×11.5cm



138



137



136



139

136

백자청화난초문병
白瓷靑畫蘭草紋瓶
조선후기
12×2×8cm

138

백자청화매조문병
白瓷靑畫梅鳥紋瓶
조선후기
19×3.5×9cm

137

백자청화매죽조문병
白瓷靑畫梅竹鳥紋瓶
조선후기
19.5×3×8.8cm

139

백자청화수복문병
白瓷靑畫壽福紋瓶
조선후기
30×4×10cm



140

청화백자"넌넌익수"호
白瓷靑畫"延年益壽"壺

조선시대
5.5×5.5×5cm

141

백자청화어문발
白瓷靑畫魚紋鉢

조선후기
11×25×9cm

142

백자청화모란문호
白瓷靑畫牧丹紋壺

조선후기
23×15×14cm

143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瓷靑畫雲龍紋壺

조선후기
24×14.5×13cm



144

백자청화수복문발 2점
白瓷靑畫壽福紋鉢 二點

조선후기
10.5×25.5×10.5cm 內外

145

백자청채해태연적
白瓷靑彩獬豸形硯滴

조선후기
5×6cm

146

백자청화산수문사각연적 2점
白瓷靑畫山水紋四角硯滴 二點

조선후기
7.2×8×5cm 內外

147

백자청화원형박쥐문연적
白瓷靑畫圓形蝙蝠紋硯滴

조선후기
4.2×8.5×8.5cm

148

백자청화산수문연적
白瓷靑畫山水紋硯滴

조선후기
7×6×6.5cm

서화

書畫

Calligraphy and Paintings

3



1
책가도
冊架圖
조선시대
144.5×108.5cm



2
쌍청루 글씨
雙淸樓 書
傳 한석봉
(韓濩, 1543-1605)
46×102cm

한호는 조선 최고의 명필로 본관은 삼화(三和), 자는 경홍(景洪), 호는 석봉(石峯)이다.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다. 천자문, 도산서원 현판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흙곡현령과 가평군수를 지냈다.



3
묵서 10폭병풍
墨書 十幅屏風
傳 한석봉
(韓濩, 1543-1605)
各 51×78.5cm

이태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를 해서로 쓴 작품이다.

황헌 초상화
黃憲 肖像畫

조선시대
175×102cm

본관은 창원(昌原), 아버지는 현감 황득중(黃得中)이다.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역모를 고변한 공으로 1등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이후 고변한 자가 수훈을 차지하는 것은 공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2등으로 감해져 효충분위병기영국공신(效忠奮威柄幾寧國功臣)으로 회흥군(檜興君)에 봉해지고 자급은 가의대부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 득중도 가선대부에 승진되었다.

경상좌병사어영대장을 거쳐 병조참의·도총부부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651년(효종 2) 12월에 일어난 김자점(金自點)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무죄임이 드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이후 다시 복직되어 평안병사, 통제사 등을 역임하였다. 1654년에는 병영의 무명베를 환전하여 착복하고 장인(匠人)들에게 만들게 한 배나 각종의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납시키는 등의 장오죄(贓汚罪)를 범해 공신으로서 사형에서 한 등이 감해져 수 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석방된 뒤인 1664년(현종 5)에 친공신으로서의 예우를 하기 위해 다시금 직첩(職牒: 관직 임명사령장)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용하라는 명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대간의 반대로 결국 환수되고 말았다.



황헌(黃憲)	이칭별칭	회흥군(檜興君)
	시대	조선 중기의 문신
	출생-사망	미상~미상
	성격	문신
	본관	창 원 (昌原)
	관련사건	심기원(沈器遠)의 역모
	대표관직	어영대장, 병조참의, 도총부부총관





5
불화 2폭
佛畫 二幅
조선시대
各 97×60cm

6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조선시대
69×94cm



7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조선시대
99×81cm



8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조선시대
76.5×75.6cm



9
신선도 대련
神仙圖 對聯
조선시대
各 61×42.5cm



10
산수도
山水圖
조선시대
直徑 27cm



11
괴석묵난도
怪石墨蘭圖
조선시대
119.5×49cm



12
묵서 墨書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1856)
94×23cm



13
복숭아 桃圖
이방자
(李方子, 1901-1989)
45×34cm

14
화훼산수도 5점
花卉山水圖 五点
조선말기
各 29×29cm



15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65×34cm



16

효제충신도 8폭병풍
孝悌忠信圖 八幅屏風

조선말기
各 96×40cm



17

수복 8폭병풍
壽福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141.5×43.5cm



18

협조십단 12폭병풍
峽樵十丹 十二幅屏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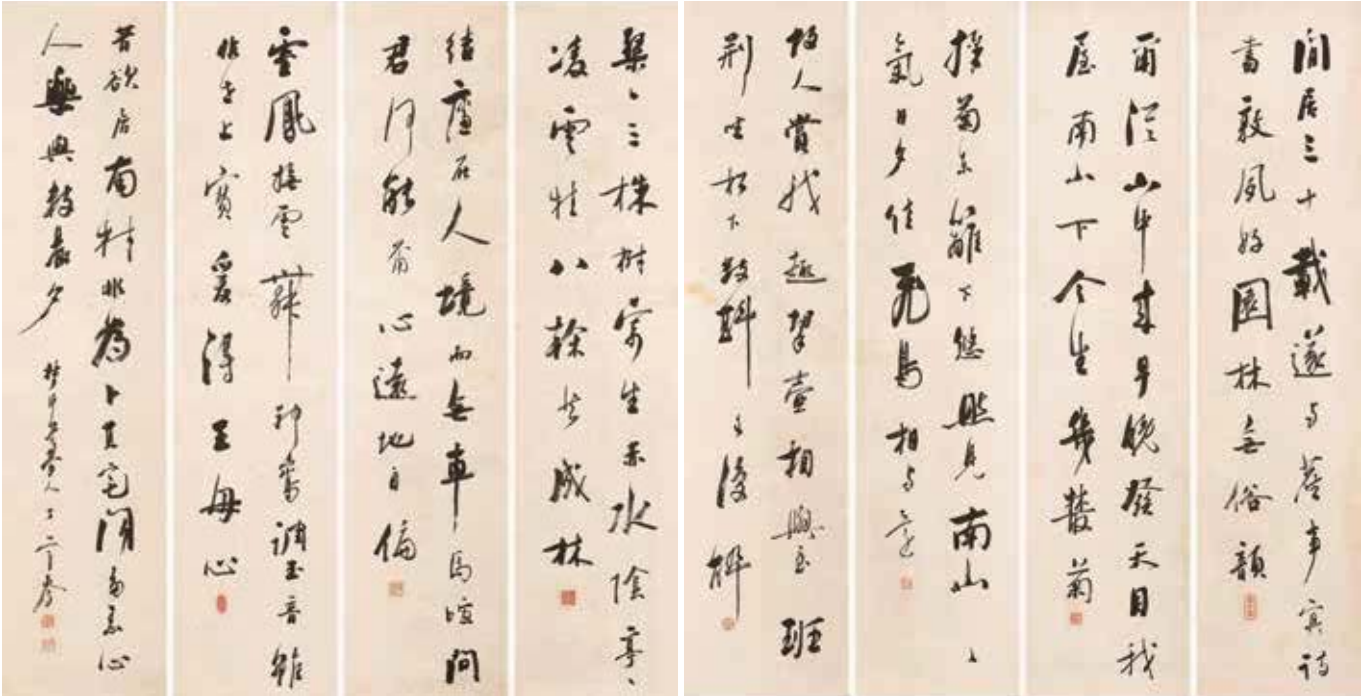
대산 강진
(對山 姜湛, 1807-1858)
各 25 × 36.5cm



19

묵서 8폭병풍
墨書 八幅屏風

몽인 정학교
(夢人丁學敎, 1832-1914)
各 125.5×30cm





20
선면 글씨
扇面墨書

관계 이도영
(貫齋 李道榮, 1884-1933)
11.5×49.5cm

21
책가도 가리개
冊架圖 二幅屏風

조선시대
各 90×43cm



22
주역 상권 周易 上卷

조선시대
14×9.8cm



23
역대기년표 歷代紀年表

조선시대
38.5×25.8cm



24
세가보략 전10책 중 9책
世家譜畧 全十冊 中 九冊

조선시대
38×24.5cm×9



25
수진본일괄
袖珍本 一括

조선시대
약 101권



28
비파행(한글)
琵琶行
조선시대
28×83.5cm



29
묵서 墨書
신익희
(申翼熙, 1894~1956)
30×144cm



26
당사주, 관상, 풍수관련 유물 40점
唐四柱, 觀相, 風水關聯 遺物 四十点
조선시대
37×30cm 内外

27
성경직해 전 9권
聖經直解 全 九卷
1892년-1897년
各 22×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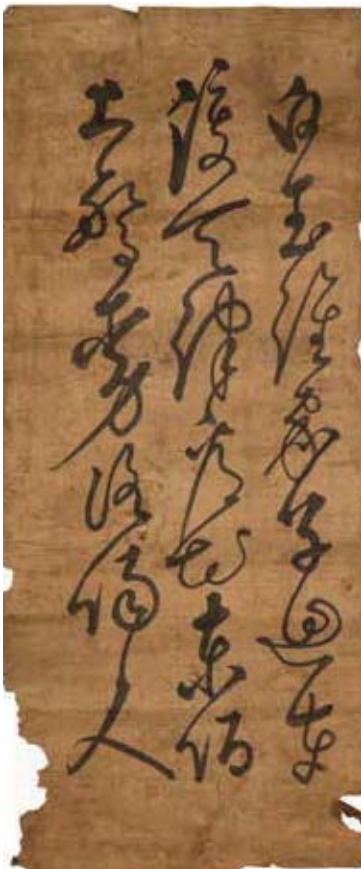


30
묵서 8폭 墨書 八幅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各 90×50cm





31
효학독실 孝學篤實
춘암 이강
(春菴 李綱, 1877-1955)
133.5×41cm



32
이태백 시 李太白 詩
조선시대
60.5×26cm



33
서작도 瑞鵲圖
조선시대
89.5×49cm



35
화조도 10폭병풍 花鳥圖 十幅屏風
조선말기
各 70×29.5cm

36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95×35.2cm



34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의장에게 보낸 편지 書札
1966년
24.5×56cm





37
산수도 山水圖
청전 이상범
(南田 李象範, 1897-1972)
121×41cm



38
산수도 山水圖
심전 안중식
(心田 安中植, 1861-1919)
138×34.5cm



39
산수도 山水圖
남농 허견
(南農 許健, 1907-1987)
31×99.5cm



40
노안도 蘆雁圖
석연 양기훈
(石然 楊基薰, 1843-?)
133×36cm



41
신선도 神仙圖
관재 이도영
(貫齋 李道榮, 1884-1933)
125×56cm



42
 산수도 山水圖
 청진 이상범
 (靑田 李象範, 1897-1972)
 28×127cm

43
 가마우지
 고암 이응로
 (顧菴 李應魯, 1904-1989)
 44×68cm



44
 왕죽 王竹
 해강 김규진
 (海岡 金圭鎭, 1868-1933)
 165×57cm



45
영모도
翎毛圖
조선시대
24×24cm



47
십장생도
十長生圖
조선시대
60×73cm

46
시장풍속화
市場風俗畫
일제강점기
29×84cm





48

금성읍지 등 고지도 1쌍
金成邑誌等古地圖一雙

조선시대
各 80×50cm

금성읍(金成邑; 미 수복지역인 강원도 김화지역의 옛 지명)의 관아(官衙), 향교(鄕校), 객사(客舍), 피금정(披襟亭) 등이 총망라된 고지도 한 폭과 금강산 및 관동팔경(關東八景)이 모두 그려진 강원도 고지도 한쌍이다.



49

묵죽도 墨竹圖

조선시대
67×47cm



50

호작도 虎鵲圖

조선시대
104×71cm



51

산수도 山水圖

조선시대
39×29cm



52

석죽도 가리개 石竹圖 二幅屏風

소치 허련(小癡許鍊, 1809~1893)
各 105×53cm





53
어해도
魚蟹圖
조선시대
103×28cm



54
어해도 대련
魚蟹圖 對聯
조선시대
各 114×36cm



55
천상도 2폭
天上道 二幅
조선시대
各 98.8×32.5cm



56
풍속도 2폭
風俗圖 二幅
조선시대
各 127×50cm





57
해경산수도 海景山水圖
혜산 惠山
29×72cm



58
영모괴석화문도 가리개
翎毛怪石花紋圖 二幅屏風
조선시대
各 84.5×31.5cm



59
월매학도
月梅鶴圖
조선시대
129×72cm



60
 노송도 8폭일지병풍
 老松圖 八幅一幀屏風
 조선시대
 60.5×303cm



61
 군자도 8폭병풍
 君子圖 八幅屏風
 혜산 유숙(惠山 劉淑, 1827-1873)
 各 116.5×89cm



62

춘하추동 10폭병풍 春夏秋冬 十幅屏風

소정 변관식(小亭卞寬植, 1899~1976)

137.5×34cm×10폭



63

산수도 8폭병풍 山水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70×41cm





64
백매도 8폭병풍 白梅圖八幅屏風
석연 이공우(石蓮 李公愚, 1805-1877)
各 108×26.5cm



65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98×25cm



66
산수인물도 10폭병풍 山水人物圖 十幅屏風
조선시대
各 93×29.8cm





67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64×30.5cm



68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105×49.5cm



69

백납 6폭병풍
百衲圖 六幅屏風
두산 정술원(斗山 鄭述源, 1885-1955)
各 81.5 × 31.5cm



70

모란도 6폭병풍
牧丹圖 六幅屏風
조선시대
各 83×39cm



71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37×24cm

72
십장생도
十長生圖
조선말기
93×210cm



73
연화도 8폭병풍
蓮花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101×45cm



74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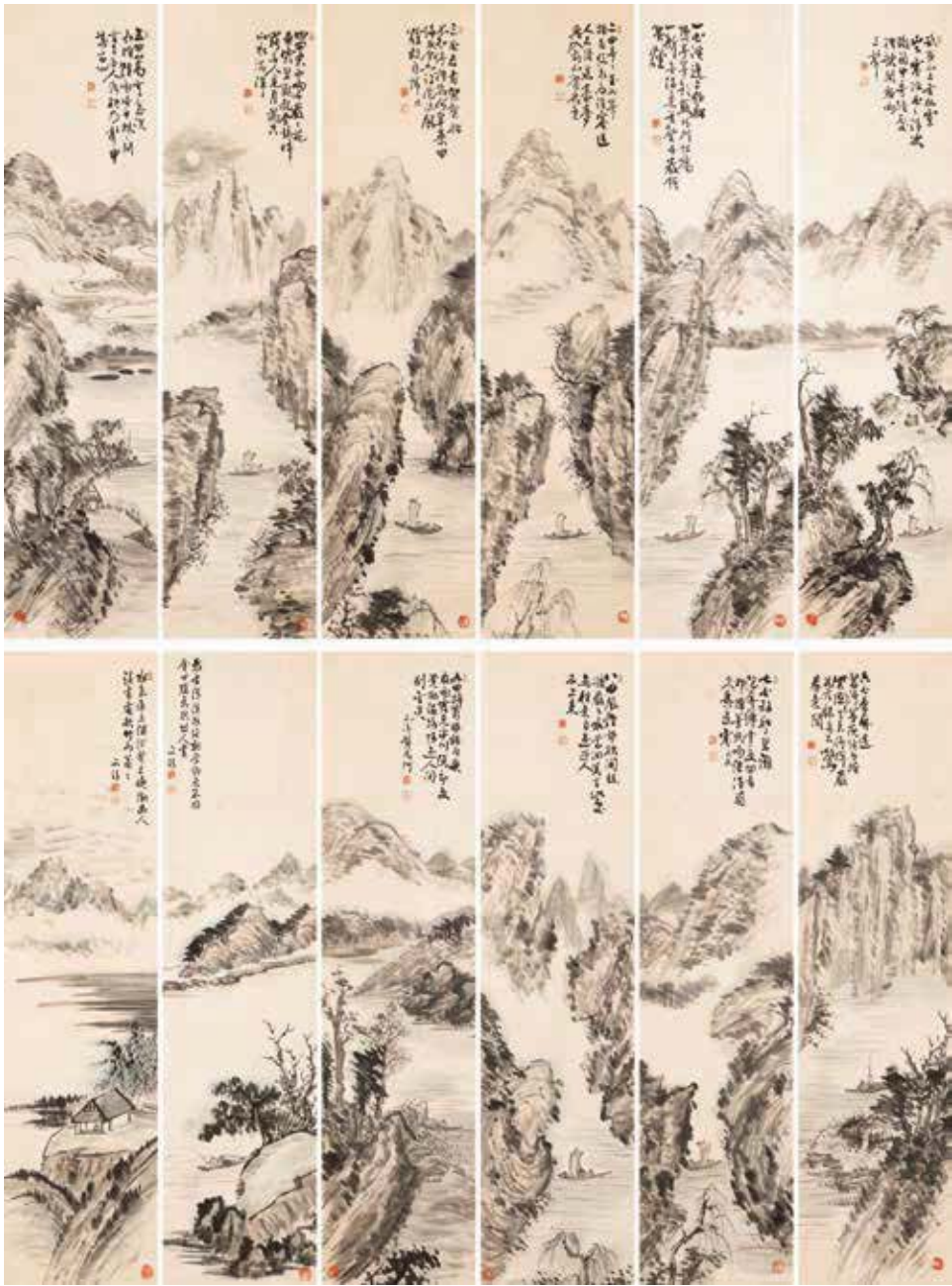
74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89×35.5cm

75
화조도 8폭병풍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各 81×33cm

76
풍경화 8폭병풍 風景畫 八幅屏風
양달석(梁滄錫, 1908-1984)
各 108×32.5cm



77
산수도 12폭병풍
山水圖 八幅屏風
우청 황성하
(又淸 黃成河, 1891-1965)
各 132×32.5cm



78
민화 어해도 10폭병풍
民畫 魚蟹圖 十幅屏風
조선시대
各 105×40cm





79

곽분양행락도 12폭일지병풍
郭汾陽行樂圖 十二幅一幀屏風

조선시대
125×319cm

80

호렵도 8폭일지병풍
胡獵圖 八幅一幀屏風

조선시대
115×392cm





81
민화 화조도 8폭병풍 民畫 花鳥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각 77×41.5cm



82
책가도 8폭병풍 冊架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각 51.2×37.5cm



83
호렵도 8폭병풍 胡獵圖 八幅屏風
조선시대, 각 44.5×34.7cm

목기 · 민속품

木器 · 民俗品

Wooden Arts · Folklore Materials



1

책장
冊櫥

조선시대
79×41×74cm



2

책장
冊櫥

조선시대
106×35.5×97.5cm



3

시층책장
四層冊櫥

조선시대
51×45×179cm

큰 서책을 보관할 수 있도록 문짝이 큰 책장으로 2층부터 4층에 이르기까지 판재의 모양이 다양하다. 장의 문턱은 거의 없게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 책장의 골재로는 배나무를 썼고 판재로는 가래나무를 썼으며 여단이문 중앙에 봉수선화형 숨은 자물쇠 앞바탕과 양옆에 숨은 경첩으로 장식했다. 이 책장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총 80권으로 해석하여 보관했던 장으로 서책과 함께 소장되어 있어 더욱 가치있고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사랑방가구라 할 수 있다.





4

공간4층책장
空間四層冊櫥

조선시대
76×37×142cm



5

공간4층책장
空間四層冊櫥

조선시대
62.5×38×115.5cm

6

주칠투각공간이층탁자장
朱漆透刻空間二層卓子櫥

조선시대
74×38×100cm

7

나전3층공간책장
螺鈿三層空間冊櫥

조선시대
76×36×136cm



8
경상
經床
조선시대
49.5×27×31.5cm

9
만자문서안
卍字紋書案
조선시대
41.5×21×20cm

10
투각향상
透刻香床
조선시대
35×27.5×21cm

11
경상
經床
조선시대
67×30×40cm

12
서안
書案
조선시대
46.5×26×27.5cm

13
서안
書案
조선시대
59×30×36cm

14
서탁
書卓
조선시대
61×19×27cm

15
조각서안
彫刻書案
조선시대
78.5×32.5×38cm

16

사층탁자
四層卓子조선시대
55.5×38×164cm

17

사층반단이탁자장
四層櫃卓子櫥조선시대
52×38×165cm

18

삼층반단이탁자장
三層櫃卓子櫥조선시대
42×40×143cm

19

사방탁자
四方卓子조선시대
49×34×161cm

20

사방탁자
四方卓子조선시대
44×44×149cm

21

사방탁자
四方卓子조선시대
46×37×173cm

22

사방탁자
四方卓子조선시대
54.7×46×171.5cm

23

만자문벼루함
透刻卍字紋硯函
조선시대
32×19×19.5cm

24

조각연상
彫刻硯床
조선시대
36×25×20cm



25

먹감연상
墨柿硯床
조선시대
42×27×26cm



26

연상
硯床
조선시대
22×18×18.5cm

27

연상
硯床
조선시대
41×39×27cm



28

갑개수리
匣櫃手理
조선시대
78×40×41cm



29

갑개수리
匣櫃手理
조선시대
56×32×36cm



30

경상
經床
조선시대
75×31×29cm



31

경상
經床
조선시대
74×26×33.5cm



32
목제양각문자문필통
木製陽角文字紋筆筒
조선시대
高 14cm



33
죽제음각필통
竹製陰刻筆筒
조선시대
高 13cm



34
목제양각목단문필통
木製陽刻牧丹紋筆筒
조선시대
高 13cm



35
목제투각십장생문필통
木製透刻十長生紋筆筒
조선시대
高 13.5cm



36
삼형제필통
竹製三口筆筒
조선시대
高 14cm



37
삼형제필통
竹製三口筆筒
조선시대
高 12.5cm



38
석제육각필통
石製六角筆筒
조선시대
高 13.5cm

39

삼층탁자

三層卓子

조선시대

73×43×152cm



40

책탁자

冊卓子

조선시대

93×32×147cm



41

서탁자

書卓

조선시대

115×32.5×112cm



42

찬탁

饌卓

조선시대

76×28×106cm



47

서탁

書卓

조선시대

172.5×46.5×61cm



43

책함

冊函

조선시대

122×46×68cm



44

책장

冊櫥

조선시대

66cm



45

책함

冊函

조선시대

39×26×36cm



46

만자문조각서안

卍字紋彫刻書案

조선시대

75×30×34cm





48
의결이장
衣櫥
조선시대
78×43×159cm



49
관복장
官服櫥
조선시대
98×42×172cm



50
관복장
官服櫥
조선시대
81×44×165cm

51
조각의결이장
彫刻衣櫥
조선말기
103×48.5×181cm

52

목제병
木製瓶

조선시대
31×3.5×11.5cm

원형의 몸통은 대나무로 되어있고 상부와 주구부분은 목재로 짜임한 물병으로 양측면에 끈을 묶을 수 있는 풍열에 구멍이 있다. 분청사기의 박지문과 같은 기법으로 사용되는 무늬 외의 바닥면을 파서 문양을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앞, 뒤 중앙부분에 「희(喜)」자를 조각하였고 위, 아래로 매화, 포도, 국화, 대나무를 조각하였으며 무늬 외의 바닥은 얇게 검은 칠을 하여 무늬가 돋보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공예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형태와 조각 솜씨가 뛰어난 물병이다.



53

먹감삼방탁자
墨柿三方卓子

조선시대
60.5×29.5×159cm

55

서랍문갑
文匣

조선시대
35×21.5×33cm

56

먹감문갑
墨柿文匣

조선시대
66×33×60cm



55



56

54

먹감사방탁자
墨柿四方卓子

조선시대
58×41×187cm



53



54



57



58



59



60



61



62

57

서류함
書類函

조선시대
34×20×6,5cm

59

함
函

조선시대
47×22,5×22,5cm

61

오동함
梧桐函

조선시대
39,5×24,3×23cm

58

함
函

조선시대
44×26,5×26cm

60

오동나무함
梧桐函

조선시대
60×37×29cm

62

오동필함
梧桐筆函

조선시대
38×15×26cm

63

이단문갑
二段文匣

조선시대
79×28×50cm

64

오동공간문갑
梧桐空間文匣

조선시대
101×25×45cm

65

문갑
文匣

조선시대
114×29×44cm



63



64



65

66

괴목전주이층장
槐木全州二層櫥
조선시대
68×35×84cm



67

남원이층장
南原二層櫥
조선시대
94.5×43×101cm



68

남원이층장
南原二層櫥
조선시대
86×28×101cm



69

태극상감이층장
太極象象二層櫥
조선시대
70×34×87cm



70

이층농
二層籠
조선시대
83.5×41.7×137.5cm



71

용목문갑
龍木文匣
조선시대
164.5×45.5×40cm





73
이층농
二層籠
조선시대
77×35.5×118cm

74
전주장
全州藏
조선시대
72×39×91cm



72
이층농
二層籠
조선시대
80×40×123cm



75
문서함
文書函
조선시대
45.5×13×13cm



76
서류함
書類函
조선시대
51×19×19cm



77
가죽함
革函
조선시대
44×11×14cm



78
문서함
文書函
조선시대
51×14×15cm



79
관복함
官服函
조선시대
60.5×39×12.5cm



80
문서함
文書函
조선시대
45×12×13cm

81

팔각관모함
八角官帽函

조선시대
24×24cm

82

오동팔각함
梧桐八角函

조선시대
27×11cm



83

망건틀
網巾形

조선시대
12×5cm

84

비녀함
簪函

조선시대
45×8×10cm



85

함
函

조선시대
38.5×20×24.5cm

86

망건통 3점, 상투관
網巾筒 三点, 推髻冠

조선시대
10×13.5cm 内外, 6×5×8cm



87

머릿장
單層櫥

조선시대
69.5×34.3×53cm



88

지함 1쌍
紙函 一雙

조선시대
66×40×40cm



89

나전이층농
螺鈿二層籠

조선시대
54.7×46×171.6cm

90

나전구갑문이층농
螺鈿龜甲紋二層籠

조선시대
54.7×46×171.7cm



91
주칠경대
朱漆鏡臺
조선시대
23×35×28cm



92
경대
鏡臺
조선시대
19×27×18.5cm



93
빗접
梳匣
조선시대
24.5×21×25cm

94
패물함
佩物函
조선시대
30×29.5×22cm



95
남자경대
男子鏡臺
조선시대
25×13×3cm



96
남자경대
男子鏡臺
조선시대
12×6×8.5cm



99
가마경대
鏡臺
조선시대
13×18×10cm



97
빗접
梳匣
조선시대
31×31×25.5cm

98
경대
鏡臺
조선시대
14×20×9cm

100
빗접
梳匣
조선시대
27.5×27×24.5cm



101

약장
藥櫥

조선시대
93.5×31×129.5cm



102

약장
藥櫥

조선시대
90.5×34.5×110cm



104

약장
藥櫥

조선시대
78×31×68cm



105

약장
藥櫥

조선시대
68.5×24×96cm

106

약장
藥櫥

조선시대
81×23×98cm



103

약장
藥櫥

조선시대
98.5×103×31cm





107
감개수리약장
匣櫃手理藥櫥
조선시대
111×26×133cm



108
경기도약장
京畿道藥櫥
조선시대
105×27×150cm

109
석제문갑연상
石製文匣硯床
조선말기
43×24×35cm

조선후기에 제작된 백석문갑연상은 곁은 화류목을 사용하여 돌의 강함을 받쳐주고 안에는 부드러운 오동나무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백석바탕에 흑색 十와 卍를 상감하여 만복의 결집을 기원하였으며 네 면을 상서로운 학, 기린, 박쥐, 표범을 조각하여 집 안에 액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오기를 비는 선비들의 마음을 연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110

나전함

螺鈿函

조선시대
39×22×26cm



111

나전함

螺鈿函

조선시대
28×17×18cm



112

나전화문함

螺鈿花紋函

조선시대
38×24.5×21cm



113

나전함

螺鈿函

조선시대
14.5×16cm



114

나전빗집

螺鈿梳匣

조선시대
25.2×37.8×30.5cm



115

나전농

螺鈿籠

조선시대
77×38×45cm



116

나전함

螺鈿函

조선시대
81×45×45cm



120
언양돈궤
彦陽錢櫃
조선시대
106×49×57cm



117
돈궤
錢櫃
조선시대
43.5×34.5×14cm

118
돈궤
錢櫃
조선시대
39×22×23cm

119
괴목돈궤
槐木錢櫃
조선시대
91×39.5×34cm



121
상주돈궤
尙州錢櫃
조선시대
84×44×46cm

122
나주돈궤
羅州錢櫃
조선시대
111×51×52cm



123
남원돈궤
南原錢櫃
조선시대
107×48×45cm





124
양산반닫이
梁山櫃
조선시대
91×43×64cm



125
경상도반닫이
慶尙道櫃
조선시대
78.5×34×59cm



126
양산반닫이
梁山櫃
조선시대
99.5×53×66.5cm



127
이층지장
二層紙幀
조선시대
86.5×40×121cm



128
이층책장
二層冊幀
조선시대
89×40×119cm

129

반단이
櫃

조선시대
73×34×59.5cm



130

경상도반단이
慶尙道櫃

조선시대
76×37×56cm



133

책반단이
冊櫃

조선시대
108.5×40.5×95cm



134

금산반단이
錦山櫃

조선시대
95×34×61cm



131

나주반단이
羅州櫃

조선시대
126×40×66cm



132

반단이
櫃

조선시대
72×27.5×50.5cm



135

괴목반단이
槐木櫃

조선시대
65×28×49cm



136

고창반단이
高敞櫃

조선시대
108×48×91cm



137

밀양반단이
密陽櫃

조선시대
95×45×54cm



138

경기도용목반단이
京畿道用木反단

조선시대
82×43×60cm



139

양산반단이
梁山櫃

조선시대
92×47×65cm

140

반단이
櫃

조선시대
70×38×42cm



141

언양반단이
彦陽櫃

조선시대
100×45×54cm



142

금산반단이
錦山櫃

조선시대
85×35×59.5cm



143

경상도반단이
慶尙道櫃

조선시대
94×39×46cm

144

경기도반단이

京畿道櫃

조선시대

99×43×76cm



146

146

양산백동반단이

梁山白銅櫃

조선시대

90×44×54cm

147

송송이반단이

櫃

조선시대

95×47×97cm



148

148

백동평양반단이

白銅平壤櫃

조선시대

87×45×95cm

149

송송이반단이

櫃

조선시대

94×44.5×86cm



150

150

반단이

櫃

조선시대

72.5×39×85cm

151

송송이반단이

櫃

조선시대

96×45.5×87cm

145

평양조각반단이

平壤彫刻櫃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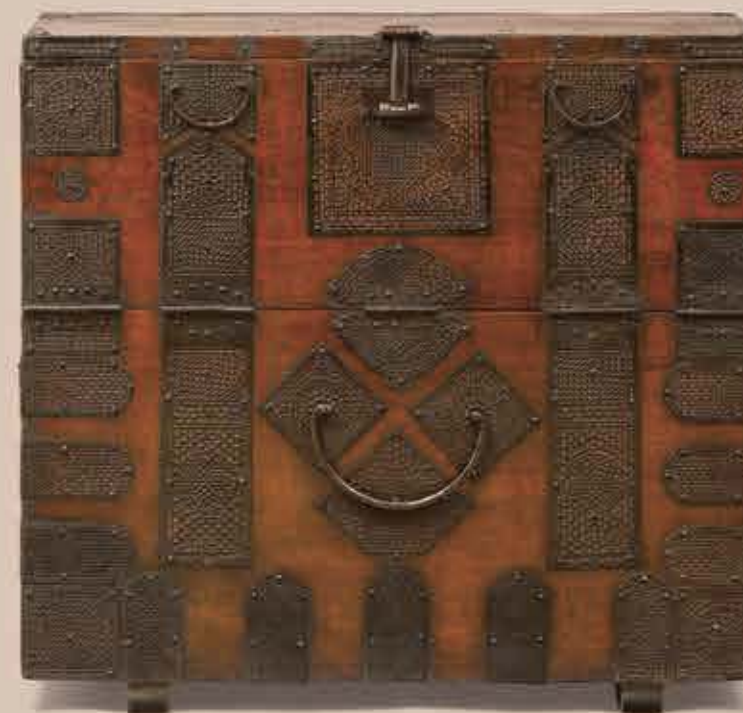
83×72×44.5cm



147



149



151

152

장기판
將棋板

조선시대
40×40×14cm



156

시전지판 2점
詩箋紙板 二点

조선시대
33×17cm, 21.5×14cm



156

157

은상감십장생문자물통
銀象嵌十長生紋鎖金

조선시대
17.3×9.5cm



157

158

은상감수복강령문담배합
銀象嵌壽福康寧紋煙竹盒

조선시대
12×9×7cm

159

은상감장생문담배합
銀象嵌長生紋煙竹盒

조선시대
10×8.5×6.5cm

160

은상감향로
銀象嵌香爐

조선시대
19×29×26.5cm

161

은상감필통
銀象嵌筆筒

조선시대
12.5×8.5×8cm



153

붓걸이
筆架

조선시대
43×35×14.5cm



154

154

팔걸이
依枕

조선시대
48×15×28cm



155

155

안침
安枕

조선시대
79×24×31cm



158



159

160

161



162

화형일주반
花形一柱盤조선시대
45×27cm

163

화형일주반
花形一株盤조선시대
31×22cm

164

화형사각반
花形四角盤조선시대
44×33×24cm

165

화형죽절소반
花形竹節小盤조선시대
38.5×28cm

166

주칠원형반
朱漆圓形盤조선시대
25×45.5cm

167

일주반
一柱盤조선시대
32.5×32×23cm

168

충주사각반
忠州四角盤조선시대
44×35×27cm

169

공고상
番床조선시대
41×21cm

170

투각약상
透刻花紋藥床조선시대
32×27.5×21cm



171
향상
香床
조선시대
45×30×36cm



172
나주소반
羅州小盤
조선시대
63×48×31cm



175
나전대모용봉문사각상
螺鈿玳瑁龍鳳紋四角床
조선시대
100×33×69cm



176
교자상
交子床
조선시대
96×83×32cm



173
향상
香床
조선시대
33×16×22cm



177
경상도상
慶尙道床
조선시대
85×47×31.5cm



174
서탁
書卓
조선시대
95×36×26cm



178
호족사각상
虎足四角床
조선시대
96.5×69×38cm



179
위폐함 1쌍
位牌函 一雙
조선말기
42×54×77cm

180
감실
龕室
조선시대
62×32cm



185
왕진약장
往診藥櫥
조선시대
24.5×14×22cm



184
괴목함
槐木函
조선시대
23×13×25cm



186
약연
藥硯
조선시대
18×39×25cm



187
찬합
饌盒
조선시대
14.5×24×14cm



181
목제유서통
木製諭書筒
조선시대
長 66cm



182
영정함
影幀函
조선시대
83.5×14×8cm



183
무쇠장식서류함
書類函
조선시대
44×9×12cm

188 목안 木雁
조선시대 34×16×10cm

189 목안 木雁
조선시대 26×10×18cm

190 목안 木雁
조선시대 25×10×20cm



191 화약통 火藥桶
조선시대 長 23cm



192 목조각 木彫刻
조선시대 16×37×15cm



193 목오리담배대 木雁煙竹
조선시대 高 29cm

194 먹통 墨筒
조선시대 17cm



195 나무 고리 木製
조선시대 17cm



196 화살통 3점 (지통1, 대나무2)
箭筒 三点
조선시대 91×87cm 内外



197 거북빗장 龜形毬
조선시대 28×15cm

198 가죽신 革靴
조선시대 7×23cm

199 가죽신 2점 芒鞋 2点
조선시대 26×8cm, 26×7cm

200 나막신 2점 木鞋 2点
조선시대 27×12cm, 28×12cm



201

강원도원반
江原道圓盤

조선시대
36×17 cm



203

도시락
饌盒

조선시대
14×14.5×26.5cm



207

죽제연화형필반
竹製蓮花形筆盤

조선시대
16×5cm



208

색지동고리
色紙函

조선시대
26×49cm



209

반진고리
裁縫具箱

조선시대
31.5×13.5cm



212

삼단 종이함
三段紙函

조선시대
45.5×30×13cm 内外

202

사각반
四角盤

조선시대
43×31×15cm



204

제주함지
濟州函支

조선시대
82×20cm



205

모반
盤

조선시대
45×34×14cm



206

덧박
食升

조선시대
27×27×15cm



210

삼단채상
三段彩箱

조선시대
47.5×29×18cm 内外



211

삼단 종이함
三段紙函

조선시대
43×26×11.5cm 内外



213
삿갓 1쌍
蘆笠 一雙
조선시대
直徑 99cm 内外



214
삿갓 2점
蘆笠 二点
조선시대
直徑 50cm 内外



215
종이뒤주
地斗廚
조선시대
高 75.5cm



216
홍적선
扇
조선시대
67cm



217
지승지갑
紙繩紙匣
조선시대
28×17cm



218
지승오리
紙繩雁
조선시대
38×13×17cm



219
지승함
紙繩函
조선시대
10×37cm



220
지승 3점
紙繩 三点
조선시대
21×10cm 内外





221
죽제초롱
竹製燈籠
조선시대
21×21×25cm



225
좌등
座燈
조선시대
35.5×33.5×78cm



227
밀양호롱 6점
燈蓋 六点
조선시대
10.5cm 内外

226
부익늑쇠화형등잔, 부익늑쇠새등잔
鑢器燈盞
조선시대
26cm, 25cm



228
목제촛대, 백자등잔
木製燭臺, 白瓷燈盞
조선시대
33×13.2cm



222
밀양등잔대
密陽燈盞臺
조선시대
23×23×95cm

223
마당등잔
燈盞
조선시대
141.5cm

224
촛대 1쌍
燭臺 一雙
조선시대
各 69×17.4cm



229
신선로 7점
神仙爐 七点
조선시대
19×21cm



230
놋쇠제기 2점
鑛器祭器 二点
조선시대
26×17cm, 20×18cm



231
향합 2점
香盒 二点
조선시대
7×11.5cm, 7×9cm

232
주전자
酒煎子
조선시대
18×18cm



235
타구
唾具
조선시대
10×10cm



233
쌍어문백동세숫대야
雙魚紋白銅水盤
조선시대
10×38cm



234
놋 세수대야
黃銅水盤
조선말기
10×38cm



236
가마요강 3점
黃銅溺盆 三点
조선시대
11×16cm 内外

237
타구
唾具
조선시대
8×11cm

238

백동화로
白銅火爐

조선시대
31.5×29.7cm



239

백동원형가마화로
白銅圓形火爐

조선시대
19×16×16cm



242

돌그릇
石製器

조선시대
9.8×21.5×24cm



243

석제부도탑
石製浮屠塔

조선시대
高 30cm



240

백동화로
白銅火爐

조선시대
27×42×25cm



241

동화로
銅火爐

조선시대
22×25cm



244

곱돌화로
滑石火爐

조선시대
23×46cm



245

쑥돌팔각화로
石製八角火爐

조선시대
23×23×23cm





246
초두
釜斗
조선말기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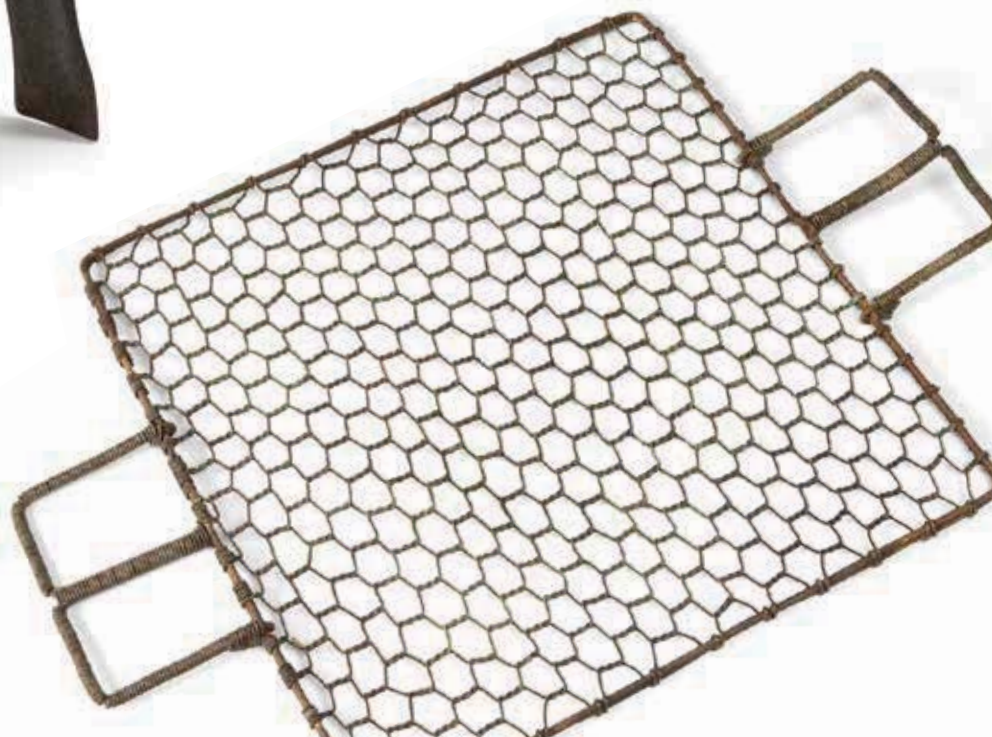
247
세발 초두
三足釜斗
조선시대
35cm



248
약탕기
藥湯器
조선시대
18×18×40cm



249
무쇠솥
鐵鑪
조선시대
33.5×42cm



250
석쇠
鑪
조선시대
40×58cm

251
가마
四人轎
조선시대
70×92×105cm



252
요여
腰輿
조선시대
225×90×51cm

253
평상
平床
조선시대
182.5×104×46cm





254

호문홍배
虎紋胸背

조선시대
25×26cm×2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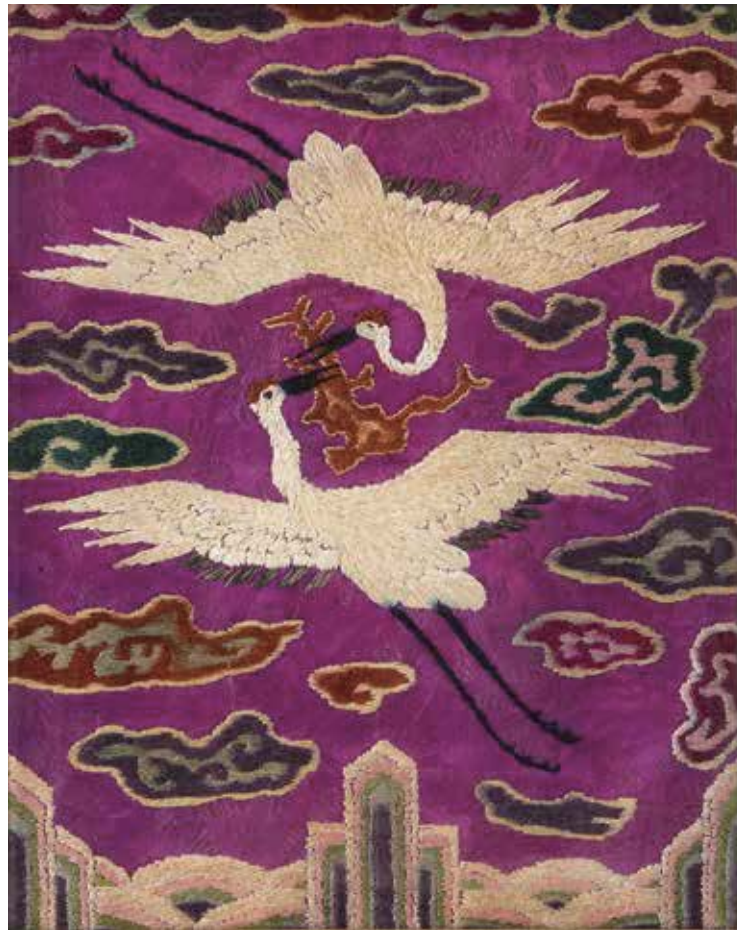
학문홍배
鶴紋胸背

조선시대
22×24cm×2

256

홍배
胸背

조선시대
21.5×17cm×2



257

등채
藤策

조선시대
長 70cm



258

댕기관
唐只

조선시대
115cm



259

차면선
遮面扇

조선시대
51cm







264
보자기
襟子
조선시대
39.5×38.5cm



265
팔만침 외 바늘꽃이 4개
民俗品
조선시대
21cm 内外

266
버선본집
足衣本囊
조선시대
8×9cm 内外



267
비녀 13점
簪 十三点
조선시대
25cm 内外



268
금도금용두비녀
金鍍金龍頭簪
조선시대
長 35cm



269
비녀
簪
조선시대
長 32cm



270
서루 현판 書樓 懸板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1856)
66×43cm



273
이호정 현판
二湖亭 懸板
조선시대
85.5×32.5cm



274
저존제 현판
著存齋 懸板
조선시대
123×57cm

271
단사 현판 丹史 懸板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1856)
140×70cm

272
결성지영 현판 結成之英 懸板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1786-1856)
95.5×31.5cm

275
용원정 현판
龍源亭 懸板
조선시대
170×78cm





276
목제채색동자상 1쌍
木製彩色童子像 一雙
조선시대
高 71cm

277
목각채색인물상 1쌍
木刻彩色人物像 一雙
조선시대
高 110cm



278
목제채색극락조
木製彩色極樂鳥
조선시대
66×88cm

279
나한상 1쌍
羅漢像 一雙
조선시대
高 67×42cm

280
동자상
童子像
조선시대
60cm





281
목각귀면상 1쌍
木刻鬼面像 一雙
조선시대
60×43.5cm



282
귀면 1쌍
鬼面 一雙
조선시대
63×38cm

283
귀면 1쌍
鬼面 一雙
조선시대
68×43cm



284
하회탈
河回-
조선시대
長 25cm



285
도제인면아궁이
陶製人面아궁이
조선시대
20×37cm

286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長丞
조선시대
200cm 内外



287

은신선로
銀神仙爐
이왕가공방
17×22cm



288

은수저 6점
銀匙箸 6点
이왕가공방
19.5cm



291

마이센 금도금 채색사각함
MEISSEN 金鍍金 彩色四角函
1910년경
30×17×19cm



289

안동 성소병원
유리 원판필름 17장
1930년대
8.2×10.1cm



290

대통령하사 지휘봉 12점
大統領下賜 指揮棒 十二点
근현대
長 70cm 内外



292

중국 명대 지장보살
中國 明代 地藏菩薩
명대
17cm

293

도안옥석벼루
玉石硯
청대
15.5×25.5cm



한국고미술협회 회원 전 약관

목적

- 이 ‘한국고미술협회展’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의 정회원들이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한국고미술품을 알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전시회입니다.
- 고미술을 사랑하는 모든 애호인과 소장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로 다양한 분야의 고미술품을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변화, 다변화를 지향합니다.

전시운영위원회 구성

- 전시운영위원회와 전국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각 권역별 지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 전시운영위원회는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과 전시 작품의 관리를 총괄하고 전시 종료후 작품대금을 완납한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작품을 인도하며, 판매되지 않은 출품 작품을 지회에 인계하기까지의 관리를 총괄하며 파손·분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지회의 책임

- 각 지회는 회원들의 전시작품 출품을 대행하여 지회대표의 책임과 관리에 따라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전에 전시운영위원회에 인계하며, 전시 종료 후 전시운영위원회로부터 인계받아 회원들에게 반환하기까지 반입, 반출의 관리책임을 맡아 진행합니다.

출품작 선정

- 전시출품작품은 회원들이 신청한 출품신청서를 지회에서 1차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은 전시운영위원회가 선임한 분야별 특별감정위원들의 감정을 1~2회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판매와 대금 납부 및 작품 인도

- 전시작품은 정찰가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판매된 모든 작품에는 협회가 보증하는 ‘작품보증서’를 발행합니다.
- 작품구매자에게는 별도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시작품에 대한 계약은 구매자가 작품가의 10%이상 납부함과 동시에 효력 이 발생합니다.
- 작품대금 납부는 본 전시회 종료(2020. 7. 30) 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구매자가 전시회 종료일 전 완납이 어려울 시에는 전시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완납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가가 2억원 이상의 작품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연장기간까지 작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시에는 작품계약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며 계약금은 전시운영위원회에 귀속됩니다. 귀속된 계약금은 작품출품자에게 위약금으로 50%를 지급합니다.
- 구매자에게 작품인도는 전시 종료 후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시 기간 중에 작품대금을 완납한 구매자에 한하여 작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작품대금을 완납하고 전시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구매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작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종료후 30일이 지나서도 작품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해당 작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운영위원회가 지지 않습니다.
- 구매자가 작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구매자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

- 이 전시회는 전국 회원이 출품 위탁하여 전시하는 종합전으로서 명칭, 보조설명, 추정가 등은 참고자료일 뿐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출품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위탁판매수수료

- 위탁판매수수료는 판매가의 11%(부가가치세 포함)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 판매가가 10,000,000원일 경우,
 $10,000,000 \times 11\% = 1,100,000$ 원이 총 위탁판매수수료입니다.

작품대금 정산과 결산 보고

- 전시운영위원회는 판매된 작품의 대금 입금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작품별로 출품한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전시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개별 입금합니다. (단 2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일 이내 입금)
-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된 작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해당 작품을 출품한 회원과 상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시 종료 후 전시운영위원회는 결산 내역을 한국고미술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협회발전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전시운영위원회 해산

- 전시운영위원회는 전시총결산 보고 직후 자동해산하며, 미결부분은 한국고미술협회로 이양됩니다.

◎ 일러두기 내용과 관련 문의 : 사무국 02-732-2240

◎ 작품대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602-839939 예금주 : (사)한국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협회 회원가입안내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회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www.hkoms.or.kr 「게시판」 참조

지회 연락처 : www.hkoms.or.kr 「회원」 참조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안내

고미술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선정된 감정위원들이 정직하고 확실하게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협회가 보증을 합니다.

◎ 감정일시 매주 화요일

◎ 감정신청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수시접수

◎ 감정종목 고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석공예, 목공예, 민속장신구 등

◎ 감정수수료 1점당 330,000원 (병풍 및 시가감정은 별도 문의)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안내

고미술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선정된 감정위원들이 정직하고 확실하게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협회가 보증을 합니다.

- **감정일시** 매주 화요일
- **감정신청**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수시접수
- **감정종목** 고서화, 도자기, 토기, 철물, 석공예, 목공예, 민속장신구 등
- **감정수수료** 1점당 330,000원 (병풍 및 시가감정은 별도 문의)

일반 감정수수료 (2009. 9. 29개정) (VAT포함)		
구 분	일반비회원	정회원
1점(기본)	330,000원	220,000원
대련(가리개)	440,000원	330,000원
일지병풍	550,000원	
4곡병풍	660,000원	
6곡~8곡병풍	770,000원	
10곡~12곡병풍	880,000원	

* 화첩도 위 규정에 준한다.

시가 감정수수료 (2003. 3. 26 개정) (단위:원)			
구 분	시가감정료	부가세	계
500만원미만	100,000	10,000	110,000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300,000	30,000	330,000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500,000	50,000	550,000
2,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800,000	80,000	880,000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000,000	100,000	1,100,000
1억원이상~3억원미만	2,000,000	200,000	2,200,000
3억원이상~5억원미만	3,000,000	300,000	3,300,000
5억원이상~7억원미만	4,000,000	400,000	4,400,000
7억원이상~10억원미만	6,000,000	600,000	6,600,000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8,000,000	800,000	8,800,000

※ 10억원단위 상승시마다 2,200,000원 추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www.hkoms.or.kr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406호 TEL 02-732-2240 FAX 02-723-2205

2020 한국고미술협회전

옛
삶으로
마음을
열다

2020. 7. 24 — 7. 30
아라아트센터

주최
(사)한국고미술협회

발행인
박정준

발행일
2020.7.24

발행처
(사)한국고미술협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406호
전화 02 732 2240 / 팩스 02 723 2205

전시총괄
강민우 신소윤 김정수

자문
양의숙

자료편집
박상현 신용일

사진
사진발진소(윤광빈)

편집
디자인숲

인쇄
서경문화사

주관
종로구청

© (사)한국고미술협회 2020

이 도록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사)한국고미술협회에 있으며
본 협회의 허락 없이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책장 | 조선시대 | 51.5×39.5×148cm

통인가게

The Store from TONG-IN

통인가게는 1924년 인제 김정환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미술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인사동의 중심지로 역사와 함께 숨쉬는 통인가게는 우리의 미래유산인 고미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며 예술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고파경매장

대표 김 송 철 (경남지회 지회장)

010-3411-4824 / 010-3571-4824

高麗房

Antique Gallery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6-1 1층
02-730-3735



2020년 부산지회전 骨董品復古展

2020년 8월 26일 - 8월 30일

해운대문화회관 1,2전시실 문의: 부산지회 010-4873-9673



백자정화호



흑유자라형병

한국 고미술협회 전북지회 상설 판매 전시장(수다작)

지회장 : 이정우 (010-4654-4237)

총무: 정승호 (010-3684-2855)





봉황은삼작노리개

海印

古美術 GALLERY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0길 24 mobile, 010-9190-7750 대표 김 병 주

 **Gallerymoim**
Korean Art & Antiques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23-8
mobile 010-2460-3634 e-mail gallerymoim@naver.com
www.moimbang.co.kr

한국고미술품 감정 및 매입

고미술 고궁

古美術 古宮



대표 김 영 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78 mobile, 010-5500-9255

각 카테고리별 희귀유물 다량 보유!

거창박물관

관장 정지태 휴대폰번호 010-3778-6790 유선번호 02-960-6790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증안로 5 대산빌딩 1층

홈페이지 geochangsa.com 전자우편 cjt0069@hanmail.net



옥새 수훈지보(垂訓之寶)
77 X 115 X 100mm
(가로X세로X높이) / 무게 1246g



조선백자 교룡유개호(蛟龍有蓋壺)
500 X 1030 X 120 X 140 X 320mm
(높이X둘레X구경X저경X직경)



조선 관반(關盤)
450 X 277mm (지름X높이)



고려관음보살래영도(高麗觀音菩薩來迎圖)
345 X 830mm (가로X세로)

한국 고미술, 근·현대 미술품 수집을 위한 뉴 솔루션



동이옥션

누구나 출품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재미있는 동이옥션 토요1시경매

주요 출품작 40~50점은 매주 금요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되며,
응찰하시기 전에 미리 출품작 정보(프리뷰)를 제공해 드립니다.

- 1째주 : 도자기, 토기, 청동, 옥 등
- 2째주 : 고가구, 민속품, 공예품, 자수 등
- 3째주 : 고서, 서예, 고문서, 양장류, 근대사 사진, 자료 등
- 4째주 : 회화 - 한국화, 서양화, 조각상, 민화, 불화, 외국 그림 등
- 5째주 : 테마가 있는 기획 경매

온라인경매

월 1회 동이옥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메이저경매

연 2~3회 유물과 작품을 분야 별로 출품받아 최상의 작품작만
선정하여 진행되는 메이저경매입니다.

*** 동이옥션 2020 하반기 메이저 경매는 8월중 오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출품받습니다.**

< 상기 일정은 예고없이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古美術品
千宝舍
Gallery Cheon

대표 천 덕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0길 20

010-3860-0971

DONGYI Auction & Gallery | 위 동이옥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25-26, 성원시티타워 1F / 동이스카이갤러리 14F
대표전화. **063-232-8886** 대표전화. www.dongyiauction.com

프리뷰, 경매 참여는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담당자 또는 대표전화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미술의 아름다움
Antique Gallery IN



민속당

MINSOKDANG



대표 김정수



고미술 갤러리 인 대표 강민우

031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47 (경운동) 부남빌딩 3층
Tel. 02-766-0070 Mobile. 010-9146-1151 e-mail, galleryin@naver.co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83 Phone. 055-242-5253 Mobile. 010-9533-5253

YOUR COLLECTION IS MY BRILLIANT ART

마이아트옥션은 당신의 컬렉션과
그 컬렉션을 빛나게 해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REQUIRED

www.myartauction.co.kr
myart@myartauction.co.kr
T: 02 735 9938/ 1110

MYART
AUCTION
미술품경매는 마이아트옥션

제주에 소개되지 않았던 12폭 제주실경도와 제주문자도 병풍 걸작 등 30여점을 최초로 한자리에서 일괄 공개 하는 전시.  신의 나라 제주도에서 인간=자연=신이 삼위일체가 된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삶의 철학을 담아 자연과 문화가 일체된 진정한 이상향을 그림으로 구현한 제주문자도.  하늘과 땅, 바다,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제주인들의 독창적인 조형예술을 집중 조명한다.



조선 제주문자도 민화

濟州文字圖

2020
08.29 土 10.25 日

먹글이 있는 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경면 서자리 214-58번지

지치해송인마을內

스페이스에나르제주
SPACE YENAR JEJU

장소

에나르 서울 (스페이스에나르 제주)

대표 : 양의숙
전화 : 02-739-4200
팩스 : 02-733-9408
이메일 : yenar4200@hanmail.net



多寶星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457 수운회관 1층 02-730-5601

daboseong.com

소장하고 계신 고미술품의 가치가 궁금하신가요?

(사)한국고미술협회는 1971년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미술품 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본 협회는 선조들의 얼과 삶이 담긴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를 여러분과 함께 향유하면서 애호가와 국·공립박물관, 공·사기업, 지방행정기관 및 법원, 검·경찰, 국세청 등의 유물에 대해 약 50여년간 성실히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보존 관리

미술품
자산 평가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회는

1

설립 50년의 역사

2

6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감정위원단

3

공공기관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른 수행 평가기관

전문감정분야 : 도자기, 서화, 전적, 토기, 금속, 선사유물, 목기, 민속품, 근현대 작품 등

국내의 유일한 감정단체입니다. 유사 감정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